

[사회]

노인 등치는 건강식품 악덕 상술

'공짜 여행' '사은행사' 등 피어 판매...광주 피해 70% 급증

광주시 서구 염주동 정현옥(82) 할머니는 최근 같은 아파트에 사는 노인들이 충청남도 금산군으로 공짜 여행을 간다며 권유하자 마지못해 따라 나섰다. 여행인 줄 알았던 나들이가 순식간에 판매장으로 바뀐 건 금산군에 자리한 모 농장에 도착한 직후. 회사 사람들은 "잠시 쉬었다 가자"며 노인들을 농장으로 데리고 가 목에 종다며 녹용과 홍삼들을 보여줬고, 정노인은 마지못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며 구입했다.

했는데도 회사 측은 꺾쇠의 이름으로 거짓 사인을 한 후 속인 것이다. 무료 공연·관광을 시켜주거나 사은품·식사제공 등을 해준다는 핑계로 노인들에게 건강식품을 비싼 값에 판매하는 악덕 상술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광주 YWCA 소비자상담실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6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7건(작년 총 98건)에 비해 70% 이상 증가했다.

행사에 당첨됐으니 잔값에 약을 보내 준다는 사례가 80%에 달하며 공연을 보여준다며 속여 판매하는 사례, 무료 관광을 통해 판매하는 사례 등 다양하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60대 이상의 노인들이었다.

소비자 피해규정에 따르면 전화권유·방문판매의 경우 계약 후 14일 이내, 전자상거래·통신판매는 7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계약금 또한 기한 내에 해지 통보만 한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 건강식품 사기 '주의보'

해외여행 도중 구입한 건강식품에서 유해 물질인 카드뮴이 발견되는 등 관련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8월 현재 해외여행 건강식품 구입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은 모두 99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51건)를 이미 넘어섰다. 이중 상담 후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례는 19건이며, 중국에서 구입한 한약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호주·뉴질랜드에서 구입한 의약품 피해가 8건이었다.

중증 전문 한약방 방문을 포함시켜 진맥을 받게 한 뒤 한약을 구매하도록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맥하는 의사가 약사가 실제 자격증을 소유했는지 여부는 대부분 확인되지 않았고, 중국 한약재에서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되는 사례가 많다.

또 호주에서는 현지 가이드가 ▲정상이연골 ▲혈관청소제 등의 의약품과 생산업체를 소개하고, 업체 방문시 '호주 식약청 생산기관'이라는 표현을 써서 마치 정부기관을 방문하는 것처럼 현혹하고 있다.



새 인라인 경기장서 체전 대비 훈련

마우리 공사가 한창인 광주시 광산구 수원지구 내 인라인 롤러 경기장에서 27일 광주·전남 대표 선수들이 제8회 전국체전에 앞서 명훈련을 하고 있다. 이 경기장은 1만9천233㎡ 부지에 스피드 경기장 200m·연속트랙 258m, 피겨경기장, 엑스게임장, 관리동 등을 갖췄다. 국내 20번째 아의 인라인 롤러 경기장으로 한국토지공사에서 75억원 들여 이달 초까지 완공한 뒤 광주시에 기부채납한다.

일주일 후 도착한 50만원의 지로용지를 본 아들(48)은 깜짝 놀라 환불을 요구했지만 "당신과 관계없다. 정노인에게 돈만 받아내면 된다"는 말뿐이었다.

안상순(74·광주시 서구 생촌동)씨는 지난 5월13일 오랜만에 일가친척들이 모여 단체로 가는 여행에 들떠 있었지만 이 기분은 오래 가지 못했다. 버스기사가 "이 가격에는 못 가니 갈려면 농장 한 곳을 들려야 한다"고 말해 할 수 없이 들린 대전의 농장에서 2시간 가량 인삼음료 효능에 대한 설명에 설득돼 결국 66만원이나 하는 제품을 구입한 것이다. 일주일 후 날라온 지로용지를 보고 아들(47)은 반납을 했지만 계약금 6만원만 돌려받지 못했다.

곽정필(32·광주시 동구 계림동)씨는 모 회사에서 30만원 상당의 홍삼액기스를 받아가라는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주문하지도 않은 홍삼인데다 자신의 이름으로 구입 사인을 했다는 말을 듣고 직접 회사로 찾아가 확인해보았지만 자신의 필체도 아니었다. 확인해 본 결과, 지난 1월 어머니(50·영남 신북면)가 T회사에서 홍삼이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아 거절

9월 28일 (음 8월 18일) ◇전국날씨

흐린 하늘
흐린 후 점차 개겠다.

광주	흐리고 한때 비	19~22℃
주요	흐리고 한때 비	19~22℃
목요일	흐리고 한때 비	19~22℃
금요일	흐리고 한때 비	19~23℃
토요일	흐리고 한때 비	19~23℃
일요일	흐리고 한때 비	19~22℃
월요일	흐리고 한때 비	18~23℃
화요일	흐리고 한때 비	18~23℃
수요일	흐리고 한때 비	19~22℃
목요일	흐리고 한때 비	18~23℃
금요일	흐리고 한때 비	19~22℃
토요일	차차 흐려져 비	17~22℃
일요일	흐리고 한때 비	17~22℃
월요일	흐리고 한때 비	19~20℃

서해남부 앞바다=남서~북동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남서~북동풍 파고 1.5~2.5m
남해동부 앞바다=남서~북동풍 파고 1.0~1.5m
만남바다=남서~북서풍 파고 1.0~2.5m
목포 밀물 < 02:45 썰물 < 08:06
목포 밀물 < 15:09 썰물 < 20:28
여수 밀물 < 09:55 썰물 < 03:35
여수 밀물 < 22:09 썰물 < 15:55

▲해돋이 06:24 ▲해질 18:22 ▲달돋이 19:00 ▲달질 07:48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9(토)	30(일)	10/1(월)	2(화)	3(수)	4(목)
날씨						
최저/최고	18/26	16/26	16/26	17/27	18/26	18/27

광주 '사랑의 인공신장실' 생긴다

오는 11월 개관

'사랑의 장기기증운동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7일 오는 11월 개관을 목표로 만성신부전 환자들의 치료를 위한 '사랑의 인공신장실'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뷰 20면>

'사랑의 인공신장실'은 혈액투석 외에 검사와 약까지도 모두 무료로 제공하며 환자들에게 식사도 제공한다.

장기기증운동본부는 서울·대구·부산·제주에 '사랑의 인공신장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호남지역에는 지금껏 설립하지 못했다. 광주·전남에 현재 2천여 명의 만성신부전 환자들이 있지만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치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운동본부는 28일 오후 6시30분 광주 5·18문화센터 민주홀에서 '사랑의 인공신장실' 설립기금 모금을 위한 자선음악회를 연다. 만성 신부전증이란 여러 질환으로 인해 신장의 배설·조절·대사 및 내분비적 기능이 전체적으로 저하되거나 이상이 생기는 증상이다.

/정삼필기자 camus@

광주 11월 실시 중학생 학력평가 출제위원 명단 사전 유출

교육청-전교조 책임 공방

오는 11월 치러지는 광주 중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출제위원 명단이 사전 유출돼 광주시 교육청과 전교조 광주지부가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선 교육현장의 동요도 얻지 못한 일제고사시 시험의 출제위원 명단이 떠돌아 다녀 학교와 학원 등

전교조 측은 이 명단에 포함된 교사 6명이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히고 1~2년차를 포함한 교육경력 5년 이하 교사들이 상당수 포함된 점 등을 들어 평가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시 교육청은 이에 대해 "전교조 측이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시험을 방해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 명단은 출제위원을 논의하기 위해 선정된 위원들의 명단이지 실제 출제위원은 아니다"며 "시험실시 반대여론을 조장하기 위해 누군가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인지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콜라 1캔+초콜릿 30g =카페인 빨간불

커피나 녹차뿐 아니라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콜라·초콜릿 등에도 함유돼 있어 자칫 과량 섭취하기 쉬운 카페인의 하루 섭취기준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카페인 일일 섭취기준량을 성인의 경우 400mg이하, 임산부는 300mg이하, 어린이는 체중 1kg당 2.5mg이하로 설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체중 20kg인 만 6세 어린이는 하루 50mg이하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게 바람직하다. 어린이가 하루에 카페인 34mg이 들어 있

는 355ml의 콜라 캔 1개와 16mg을 함유한 30g짜리 작은 초콜릿 1개만을 먹더라도 총 카페인 섭취량은 50mg으로 하루 권장 섭취기준을 넘어서게 된다.

적당량의 카페인은 피로를 풀어주고 정신을 맑게 해 주며 이노작용을 통해 체내 노폐물을 제거하는 등 이로운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과잉섭취하면 불안·메스꺼움·수면장애·기슴 두근거림 등을 일으키며 계속 과잉 섭취하게 되면 카페인 중독증이 생길 수 있다.

/연남뉴스

장기기증 희망 의사 **오늘 20명 가석방**

운전 면허증에 표시 **광주교도소**

경찰청은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희망 의사를 표시하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외에도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청각장애인의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자동차(모터사이클) 운전 허용 ▲교통민원서식 간소화 ▲교통안전표지 통합·개선 ▲노인보호구역 표지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전남 이용가능성도 **대산프리모 남녀기발**

가발 **확장 이전** **세일 30%**

이용사 개런지도

0.03mm 초슬림!!

귀여운 분위와 인격을 높여주는 행복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대표전화: 010-8773-5008, 873-4622
광주점: 011-607-5330

다들 카피 검색 **마늘주사 후루민**

<http://cafe.daum.net/furumin>

광주점: 010-8773-5008, 873-4622
광주점: 011-607-5330